

# 2003 일본 국제포장기계전 **참관기**



**【김은혜-(사)한국포장협회】**

‘2003 일본국제포장기계전’은 일본 포장산업의 합리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모토로 1964년부터 개최된 이래 포장업계의 합리화·생력화에 공헌해 오고 있다. (사)일본포장기계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이 전시는 23개국 374개사가 포장기계, 포장자재, 포장재료, 가공기계, 식품기계 및 관련기기 등을 중심으로 물류산업의 한 축으로 아시아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각종 기자재들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나는 지난 10월 21일 3박 4일 일정동안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본 전시참가업체들의 방문을 통해 물류의 한 부문인 일본 포장산업의 발전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2003 일본국제포장기계전’ 참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0월21일 일본에 도착한 후 첫 행사로 (사)일본포장기술협회가 주최한 ‘일본포장산업의 현황’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 여파로 포장산업 또한 불황을 겪어왔으나 최근 들어 설비투자가 증대하고 주가상승세에 영향을 받아 포장 생산·출하 감소 폭이 지난 2001년부터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일본포장산업의 원재료별 구성비는 종이·판지가 42%, 플라스틱 제품24.5%, 금속제품19.3%로 종이·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수량 또한 종이·판지가 58.5%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플라스틱이 18.3%, 금속11.4% 순이었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하여 작년에 과거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점차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환계 포장 활동 즉, 3R의 ①폐기물의 억제 ②재사용 ③재자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모든 활동에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전 과정평가)를 통한 평가를 꾸준히 함으로써 그에 따른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쓰레기의 60%가 포장폐기물이 차지하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포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기포장 리사이클(Recycle)법’을 제정하여 가정에서부터 재사용,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박스 회수율은 100%에 달하고, PET는 올해 들어 50%, 알루미늄캔, 병 역시 80%를 크게 넘는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실행이 있으면 결과가 확실히 눈앞에 보이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실행을 하다가도 무관심 속에 묻혀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점에선 일본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에 이어 일본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이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해 모든 연령층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편리한 기능들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일본 포장산업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말로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타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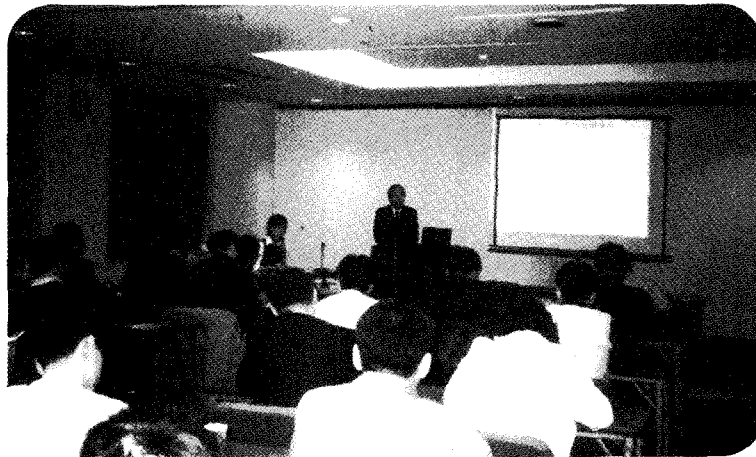
다음날 일정으로 우리는 동경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03 일본 국제포장기계전'을 관람하기 위해 전시장으로 갔다.

평소에 마스크에서 접해왔던 '일본의 도시락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듯 전시장에서도 도시락 용기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전날 세미나에서 일본포장의 원재료별 구성비에서 종이·판지가 42%를 차지한다는 내용에서와 같이 도시락 용기 제품 역시 주된 재료가 종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포장산업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의 아기자기한 멋을 살려 기능과 편리함을 중시한 포장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소량으로 날개 포장한 제품들은 시각적인 미와 더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각까지 자극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은 제품의 포장 하나에서도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장의 한 쪽에 자리 잡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문구가 눈에 띄었다. 마침 어제 세미나 내용에서도 최근 일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전시된 샘플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어린이들을 겨냥한 초콜릿포장이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몇 겹씩 겹쳐져 있어 개봉하기 불편했던 것과는 달리 양 손으로 벌리기만 하면 단번에 초콜릿이 나와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간편함과, 편리함, 또 시간 절약의 장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 포장이었다.

이번 전시회는 (사)일본포장기술협회에서의 세미나 주제였던 '일본포장산업의 동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고는 하나

이번 전시회에서 본 포장산업에서 만큼은 우리나라도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견문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세계의 포장산업 속에서도 당당히 견줄만한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류**